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확대

전북도, 임차가구에 월세 자가거주에 주택수리비 지원 빈곤층 주거안정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북도는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이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 급여)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로서 2인가구는 122만4천원/월, 4인가구는 194만3천원/월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을 말하며,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월 451만9,000원이다.



“도내 산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산업구조 개편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 산업연구원 등 도내 산업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도내 4만3,000여 임차가구는 매월 최대 2인가구 15만2,000원, 4인가구 20만8,000원을 임차급여로 받는 데 이는 전년 대비 2.9~6.6%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자가주택을 보유한 수급자 중 매년 2,300여 자가거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수정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수

선유지 급여로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을 시행한다.

더불어,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에도 621억원(국비

533, 지방비 88)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거급여사업을 통해 약 4만5,000여 저소득 수급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수급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교육생 모집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평생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군산시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습공간을 창출하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신청을 받아 총 15개소의 행복학습센터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송동 도심지역, 월명동 구도심지역, 회현면 농촌지역 및 오식도동 산업단지 지역에 행복학습센터가 개설돼 시민들에게 학습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4일부터 11일까지로 모집인원은 과목 당 선착순 10~15명이며 해당 행복학습센터 인근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교육일정 및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III.gunnsa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도진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확정... “백년 초석 다질 것”

정도진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사진)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읍, 10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일 민주당 정읍시당장은 정읍시장 후보 결정을 위한 정도진·장학수 두 후보 간 경선을 실시하고,



정도진 예비후보를 민주당의 정읍시장 후보로 공식 결정했다.

정 예비후보는 “열심히 두 후보가 아름다운 경선을 펼친 결과, 선택을 받았다”면서 “이제 같은 당 3선 국회의원인 유성업 의원과 힘을 합쳐, 함께 정읍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소통하는 시장, 농부 시장, 일자리 시장, 문화 시장, 효자 시장이 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세계인 행복체험 고창서 열린다

도, '고민 말고 Go창' 참가자 모집
청보리밭 · 갯벌 등 내달까지 운영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모하는 ‘2018 도농교류협력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고창으로 떠나는 세계인 행복체험을 주제로 ‘고민 말고 Go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농교류협력사업은 도시민, 청소년들에게 농어촌 현장체험 기회제공과 동시에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이 사업에 외국인을 함께 참여 유도하여, 전라북도 농어촌을 매개로 한 교류 사업을 펼쳐 나간다.

본 행사는 5월 12(토)~13(일)일과 6월 16(토)~17(일)일로 각 1박 2일의 일정으로 2회 운영하며, 총 80여명이 참여할 수 있다.

5월에는 ‘도깨비 잡으러 청보리 밭으로!’ 라는 주제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견학을 시작으로 고창에서 목장체험, 5월의 청보리밭 견학을 시행한다. 갯벌체험과 우리나라 전통 보은염이라

고 불리기도 하는 고창 어촌 대표 특산물인 자염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6월 주제는 ‘내 건강은 복분자와 함께!’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견학, 고창 복분자 비누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구 탐방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운곡 람사르 습지 견학, 두부 만들기 체험, 목장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민, 외국인이면 참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부모 동반 시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으로 1박 2일 일정상 교통, 숙박, 체험 등 공식 비용이 포함된다.

이영호 센터장은 “도농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전라북도의 핵심 도정 목표인 삼락농정을 추구하고 전북의 우수한 농어촌 자원을 세계로 알리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며, 도민과 외국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jbca.or.kr)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센터 교류협력팀(063-280-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민주당 탈당 시민후보로 나설 것”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참여를 하지 않았던 이현웅 예비후보(사진)가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지, 민주당계당 등에 입당해 출마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오늘 너무나 애정을 가졌던 민주당을 떠나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들의 결의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깜깜이 경선과정과 파행적 경선에 문제제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민의 바다에 몸을 던지려 한다”며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 전주시장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삼민 기자



“이현웅, 정치 다시 배워라”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

6·13 지방선거 민주당계당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현웅 예비후보에게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엄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민주당) 후광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인물이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집을 뛰쳐나가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며 “특히 관료 출신으로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평했다.

엄 예비후보는 “정치인으로서 비록 당이 다른 경쟁 상대이지만 공정한 게임을 보여주는 것이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삼민 기자



“어린이날을 즐겁고 신나게”

김승환 교육감 예비후보

“어린이 여러분은 이 땅의 씨앗이고, 이 땅의 희망이며, 이 땅의 미래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꿈과 희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김승환 예비후보(사진)가 제 96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어린이 여러분은 저를 웃게 만들고, 힘나게 만드는 마법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해요”라고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유·초·특수학교 우선 보급 ▲학생 건강을 위한 황사마스크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